



회의통역사 지망생들 위한 입문서 풍부한 경험살려 주요 연설문 분석

— 「통역리서치」 펴낸 최정화씨

이 책 그 사람

세계적 권위의
파리통역번역대학원
(ESIT) 아시아권 첫
통역학박사이며,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英·佛 동시통역사인 최정화(38, 외대
통역대학원 교학과장)씨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의
예비통역사들이 마땅히 섭렵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담아 「통역리서치」(신론사)를
펴냈다.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상세한 입문서인 「통역입문」과 그보다 약간
단계를 높은 현장성 짙은 참고서인 「통역의
실재」에 이어 최근 내놓은 이 책은
‘회의통역사가 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ABC’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전문통역사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각종 회의통역에 필요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연설문·현장스피치 내용을 중심으로 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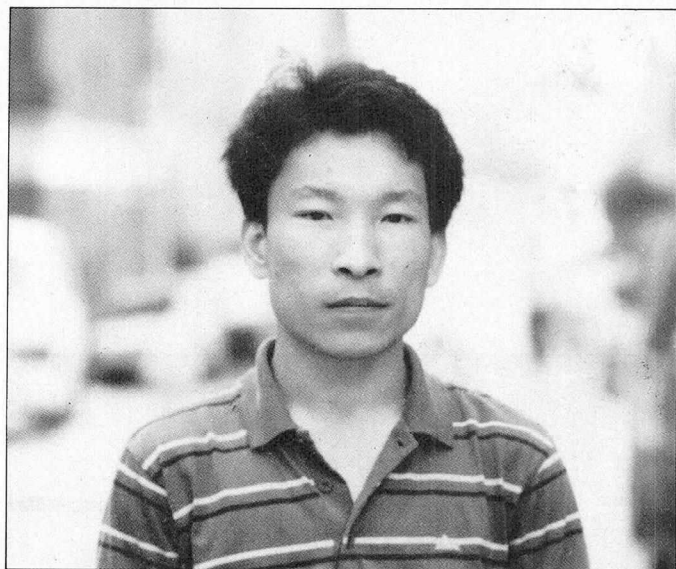
“음악가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역사들은 연설문을 ‘들어야’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통역의
기본자료가 되는 연설문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 형식을
익히두면 통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불원자력기술원탁회의 개최사나,
환경오염방지기술세미나 요지,
국제민간항공협회총회환영사, 2000년대
한반도 항공우주방어전략 회의록,
유엔가입수탁연설문, 한불정상회담 연설문 등
최저 자신이 직접 통역사로 활약했던 수백여
차례의 국제회의의 자료들을 분야별, 유형별로
나누어 통역의 핵심을 정리해놓았다.

“흔히들 통역사라 하면 동시통역으로만

생각하는데, 회의의 성격에 따라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얼마간 모아서 듣고 얘기하는 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통역의 난이도에 따라
통역안내, 수행통역, 회의통역으로 크게
3분됩니다.” 이 책은 통역 가운데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의통역의 기초를 익히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통역을 흔히 A언어를 B언어로 일대일
전환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A언어
연설자가 말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
B언어국에 가장 근접한 ‘의미’로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통역은
리피디션(반복) 작업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작업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로 ‘취 한마리 없다’고
표현했을 때 불어에서는 직역을 하면 못알아
듣고 ‘고양이가 한마리도 없다’고 해줘야
같은말로 전달됩니다. 문학작품이라면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도 있지만 통역은 여지가
없습니다. 의미의 소통이 안되니까요. 또한
‘10·26사태’란 말도 일대일 전환할 경우
못알아 듣지요. 번역에서 밑줄을 긋고 각주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를 통역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말에 해당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상식과
정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우수한 통역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씨는 아침6시 눈을
뜨자마자 CNN, NBC, 등 각국의 위성방송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국제회의
내용의 90% 이상이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 “향상 역사의 최현장에 있는 것이
통역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 정혜옥 기자



원진레이온사건 소재로 한 실록소설 산업재해 현장 생생히 드러내 충격

— 「검은 하늘 하얀 빛」 낸 오진수씨

이 책 그 사람

중졸의 학력을 가진
오진수씨(28)가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88년 7월, 15살의
문송면군인

협성계공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부터다.

‘차라리 매를 맞을 지언정 글짓기 숙제는
하지 않았다’는 그는 문송면군 사건을 소재로
쓴 중편소설 「슬픈 노래」로 1989년 제2회
전태일 문학상을 거머쥐는 개가를 올렸다. 이
소설을 쓰기전까지 그가 써 본 것이라고는
유인물뿐.

오진수씨가 「슬픈 노래」 발표 이후에도
산업재해에 관심을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바로 산업재해를 당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1981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세의 나이에 상경한 그는 여러
공장과 막일을 닦치는대로 하다가 부천
서울사료에서 압축공기탱크 폭발로 간 1/3과
담낭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속된
말로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이다. 11급의 산재 판정으로 당시 그가 받은
돈은 138만원.

이 사건 이후 그는 산재 노동자들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다.

그가 문단에 얼굴을 내민후 처음으로 써낸
장편소설 「검은 하늘 하얀 빛」도 그의 삶과
괴리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책의 무대가 되고
있는 원진레이온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세간에 자주 회자되던 원진레이온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 중풍 증세를 보이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정부’도 1989년 사망한 정근복씨가
모델이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1991년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2,689명에 이르고 이를
포함한 총 재해인원이 12만8,169명이라는
수치는 곧 이 땅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얼굴이다. 원진레이온에서도
이미 12명이 사망할 정도던(노동과 건강
연구회 자료). 이에 대해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는 소설에서 표현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
고 오진수씨는 말한다.

실록소설 「검은 하늘 하얀 빛」을 쓰면서
오진수씨는 참담한 현실에 계속 부딪쳐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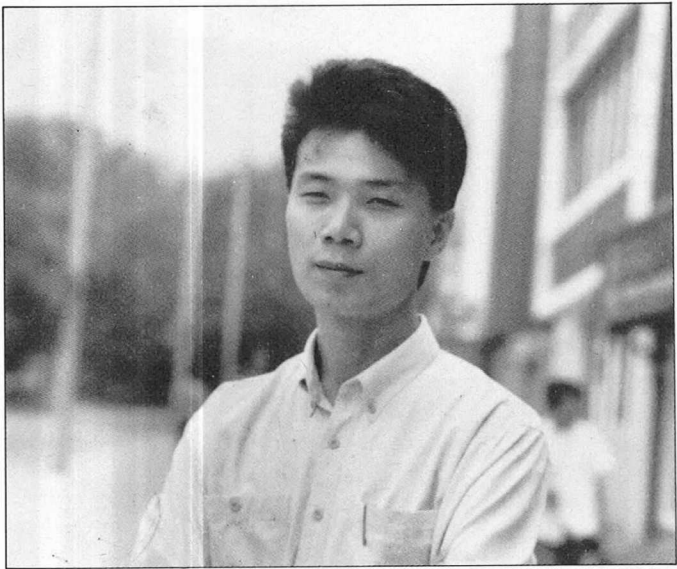
“제가 원진레이온과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함께 활동하던 동지들이 이제는 많이
죽었어요. 더리는 소설속의 주인공처럼 입을
헤 벌린채 저를 바라보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가의 말 그대로 소설에 비친 그들의
생활은 ‘비참함’이라는 간단한 단어로 집약될
듯하다. 산재 환자 정복이 변을 보면서도
‘밥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인간 이하의 생활고를 겪는 산재 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소설 「검은 하늘 하얀 빛」에는 이러한 모습
외에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부당한 노동현실에 대항하는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현재 산업재해 노동자 연합 건준위 의장을
맡고 있는 오진수씨. 산재노동자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 담당’이라는 굵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는 “하루 빨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작업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리를 높인다.

— 이성수 기자



무협지로 바꿔 읽는 80년대 학생운동사 계파대립 등 내부갈등도 솔직히 드러내

— 「무협 학생운동」 낸 김영하씨

이 책 그 사람

80년대라는 긴 터널을 학생신분으로 통과해낸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이 몸담았던 이념적 '성분'이 어떤 색깔이었던지, '학생운동'에 익숙하다. 이제는 서서히 기성세대로 편입해가는 그들의 마음 한편에서 '국장'의 암울함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雨期'의 기억을 지우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늘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류는 아마도 진눈깨비가 내리려나보다 생각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중원 백성들의 가슴에는 재앙의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다. 류는 박통의 장례행렬을 내려다보며 희망보다는 앞날에 대한 염려가 앞섰다..."

소설 「학생운동」(아침)의 첫머리는 주인공 '류'가 다가올 사태를 예감하며 지난 '鐵血維新'의 시대를 회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출중한 무예실력과 인품으로 주요 무림정파 중의 하나인 '연회방'의 맥을 이어갈 재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류'가 새롭게 중원의 통치자로 군림한 '전두마왕'의 폭정과 맞서 싸우면서 겪는 우여곡절과 내면적 갈등이 펼쳐진다.

십대의 浩然之氣를 길렀던 음침한 만화방의 무협지를 생각하며 이 소설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중원당파 기기묘묘한 무술이라도 그것이 '광조성' '아메마황' '계엄진법' '긴조전법' '민민방' '자민방' '변중창' '유물검'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면, 여느 무협지와는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일면을 무협지 형식을 빌어 담아낸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눈길을 끌며 모으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의외성'에 기인한다. 무협소설로 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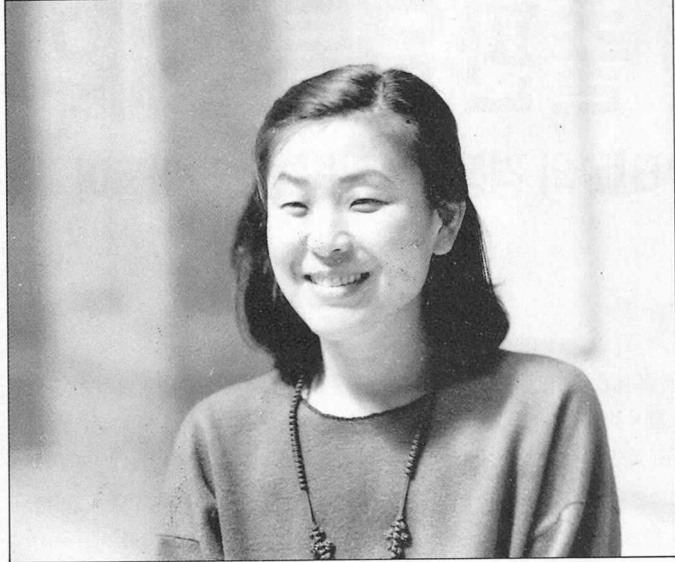
특이한 소재요, 학생운동이란 내용으로 보자면 특이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 80년대의 '운동권'이었던 김영하씨(25, 연세대 경영학과 대학원 재학중)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운동사, '읽히는' 학생운동사를 쓰고 싶었다"고 말한다. 물론 당시를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희화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협지의 형식도 학생운동의 일면적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뚜렷한 선악의 구별과 전환일률적인 권선징악의 결말이 무협지의 한계이지만, 다양한 정경과 정파가 혼재하는 현재와 비교해 본다면 80년대는 무협지적 세계관에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판단도 그의 결심에 한몫을 했다.

이 소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85년부터 본격화된 개헌투쟁 논쟁을 상징하는 이 부분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시 연합하기는 하지만 계파간 대립이 불가피했던 당시 학생운동의 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보여 주고 있어 흥미롭다.

"굳이 작가로서 이 소설에 방점을 찍는다면, 너무 많은 짐을 져야만 했던 당시 학생들의 인간적 고뇌"라고 밝히는 그는, 대학원 이전의 이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막상 무협지는 거의 읽어보지 못했고 습작기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87년 이후를 배경으로 한 후편을 비롯해 소설형식을 띤 컴퓨터 메뉴얼과 SF소설 등 그의 집필계획은 매우 의욕적이다.

— 정소연 기자



예감으로 가득찬 처녀시인의 처녀시집 화해와 용서의 무늬 아름답게 교직

—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의 이진명씨

이 책 그 사람

"제 시는 일종의 간유리라고나 할까요. 밖을 상상하게 하고 안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집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민음사)의 저자 이진명(37)씨에게는 삶도 시도 사랑도 '그런 거'다. 평화도 그냥 평화가 아니라 "오 그렇고 그런 평화"다. 이때의 감탄사는 見者의, 기쁨의 것이 아닌 '평화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나', 철이 들기도 전에 세상을 알아차린 뒤 그렇게 살아버린 자의 쓸쓸한 신음소리다. 그녀는 문학소녀의 수업시대를 얘기할 때도 그 어투를 이어간다. "다 20년전 이야기지요" 생의 순금부분도 다 마모되어 버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시선으로, 청계천 고서점을 훑으며 고은의 저작을 섭렵한 얘기, 서정주·김춘수를 많이도 좋아했다는 얘기, '生我者母也, 知我者外祖母' 얘기, 소시적에 이미 한산시나 계송을 즐겨 읽었다는 얘기, 그러나 김수영은 별로 와닿지 않더라는 얘기, 오 황진이를 읽어준 외할머니와 그 집 뜰 가득 심고 키웠던 꽃과 채소, 집안에 가을이 닥치고 그래서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얘기, 머리를 깎았던 얘기 등을 조금씩조금씩만 한다. 그녀는 시집 두어권의 얘기를 "너는 이따 아주 고독한 아이로 성숙해 있을 거다"라는 마법사(스님)의 저주(예언)를 인용함으로써 한 문장으로 요약해놓고 있다. 그녀의 시가 "예감의 기운으로 가득차 있다"는 평가는 그렇게 날것을 보여주지 않고 압축된 떨림과 감춰진 흔적을 보여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지. 작품을 빌미로 아직 처녀인 시인의 과거를 투박하지만 집요하게 물어보자 그녀는

놓았던 마음을 추스린다. "저는 현실 속의 '나'보다 작품 속의 '나'를 더 사랑합니다. 작품은 작가가 가보지 않은, 또는 가보지 못한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와 작품은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지 않은 세계는 그녀의 살(肉)에서 그다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딱히 한 구절 떼어내어 인용할 수 없으리만큼 끈적끈적한 애정을 갖고 쓴 이남호의 해설에 의하면, 그녀의 길떠남은 "일상의 근처에서 그냥 서성일 따름"이며 그 이유는 그녀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무모한 희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도저한 자세는 보통 허무나 그것의 뒷면인 공격성으로 나타나기 십상일텐데 그녀의 시에서는 필사적인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무늬들로 나타나 있어 읽는 이들의 쉬운 이해를 방해한다. "스스로 희생이라고 말하기엔 무척 우습지만, 아무튼 나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해 본 일이 있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인은 세상에 대해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대했을 때는 "나는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표현하고, '용서'란 말을 선명히 기억해내는 순간 "나는 나무기둥에서 천천히 풀려지고 있었다. 새들이 잠에서 깨며 깃을 치기 시작했다."고 술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을 눈물의 농도를 짐작케 해준다. 그러나 그녀의 시를 "쓸쓸함, 무관심, 맛없음, 살고 있음의 虛, 자아라는 非사랑" (自序에서) 등으로만 읽는다면 아직 훼손되지 않고 때없이 맑은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산문에서 그녀는 "윤기나는 말새끼처럼 튀어나오는 명랑성"에 대해 말했다. 망아지의 시어는 말새끼인가 보다. 그녀는 명랑하지 않은가. — 김중식 기자